

## 영어문법리론학습과 연구의 기본과제

서 중 남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언어는 인간생활의 힘있는 수단이다. 인간의 활동은 언어를 떠나서 이루어질수 없으며 사회적존재로서의 인간의 호상관계는 언어의 역할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언어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힘있는 무기로 된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6권 291페이지)

영어를 언어규범의 요구에 맞게 정확하게 습득하고 활용하자면 영어문법리론에 대한 옳은 이해를 가져야 한다.

이 글에서는 영어문법리론학습과 연구의 기본과제에 대하여 론하려고 한다.

영어문법리론학습과 연구에서는 무엇보다먼저 영어단어의 형태체계를 이론적으로 분석체계화한다.

단어는 일정한 문법적형태를 가지고 이러저러한 문법적뜻을 나타낸다. 단어는 어휘적인 뜻과 함께 문법적인 뜻을 가지고 어휘문법적으로 구획되는 단위이다. 그러므로 단어는 문장구조속에서 어휘적인것과 문법적인것의 뉘 수 없는 통일체로 나타난다는것이 단어의 중요한 표식으로 된다.

단어의 뜻은 말소리의 덩어리에 의하여 물질적으로 표현된다. 즉 말소리의 덩어리를 재료로 하고 여기에 뜻이 자의적인 결합으로 나타난다. 그런것으로 하여 말소리와 뜻은 서로 뉘 수 없는 통일을 이루게 되는것이 바로 단어의 다른 하나의 표식으로 된다.

이와 같이 단어는 어휘적인것과 문법적인것의 유기적인 통일체로 이루어져있으며 말소리와 뜻이 서로 뉘 수 없는 통일체를 이룬 언어의 기본단위이다.

단어는 그것이 가지고있는 뜻과 여러가지의 련관적특성으로 하여 다른 단어들과 깊은 련계를 맺으며 서로 제약되고 의존하면서 일정한 체계에 놓인다는것이 단어의 중요한 표식으로 되며 이러한 체계에 들어간 단어들을 통털어 어휘라고 부른다.

어휘는 단어라는 개념과 기본적으로 같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차이하게 된다.

어휘라고 할 때 단어들을 의미하지만 모든 단어들이 다 어휘에 포함되는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뜻을 가진 자립적인 단어들만이 어휘에 포함된다.

영어에서 관사(the, a, an 등), 보조동사(be, do, have, can, will, shall 등), 전치사(at, in, on, upon, for, of, about, with 등), 보조부사(also, too, no, yes 등)와 같이 문법적인 뜻을 나타내는 단어들은 어휘의 개념에 포괄되지 않는다.

어휘에는 또한 어휘화된 단어결합도 포함된다.

영어문법리론연구에서는 영어단어의 형태론적체계를 분석하며 여기에서는 영어단어의 형태구성체계를 분석한다. 영어단어의 형태구성체계분석은 두가지의 기본적인 기준에서 진행한다. 그 하나는 위치적기준에서 중심위치에 있는 형태부와 그의 량쪽에 있는 형태부로 가르고 앞에 있는 형태부는 앞붙이(prefix), 뒤에 있는 형태부를 뒤붙이(suffix)

로 가르며 모든 단어들에서 그 형태구성을 연구하게 된다.

다른 하나의 기준은 의미론적이거나 기능적인 기준에 의거하는데 이에 따라 말뿌리적형태부와 덧붙이형태부로 갈라지며 여기에서 기본은 말뿌리적형태부이다.

말뿌리적형태부는 영어단어의 의미-구조적중심으로 되며 전일적인 어휘적의미의 기본부분으로 된다. 그러나 덧붙이형태부는 자립적의미를 가지지 못하며 말뿌리적형태에 어휘적의미를 보충하면서 단어의 전일적의미조성에 참가하게 된다.

덧붙이형태부는 어휘-의미론적인 성격과 문법-의미론적성격을 가진다.

어휘-의미론적성격에 따라 파생적성격이 나타나고 문법-의미론적성격에 따라 관계의미적성격이 나타나며 그것들이 결합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 례: ○ work (로동, 로동하다) [어휘의미적성격]  
 ○ work+er → worker(로동자) [어휘의미적성격]  
 ○ work+able → workable(응용할수 있는) [어휘의미적성격]  
 ○ work+ing → working (일하는) [어휘의미적+문법의미적성격]  
 ○ work+ed → worked (가공한)[어휘의미적+문법의미적성격]

영어단어의 기본형태론적구조: 앞붙이+말뿌리+어휘적뒤붙이+문법적뒤붙이

영어에는 하나의 말뿌리만으로 이루어진 말줄기가 있는가 하면 두개의 말뿌리로 이루어진 합침말줄기가 있으며 하나의 말뿌리와 하나의 덧붙이로 이루어진 말줄기가 있다.

- 례: ○ work 하나의 말뿌리 (일하다/일)  
 ○ work day 두개의 말뿌리 (로동일)  
 ○ worker 하나의 말뿌리+뒤붙이 (로동자)  
 ○ rework 앞붙이+하나의 말뿌리 (다시 가공하다)  
 ○ reworking 앞붙이+하나의 말뿌리+뒤붙이 (다시 가공하기)

영어형태부는 우선 그 자립성의 정도에 따라 자유로운 형태부와 매인 형태부로 나누인다.

자유로운 형태부는 자체로 단어를 이룰수 있고 자유롭지 못한 형태부는 자체로 단어를 이룰수 없는 형태부이다. 여기에서 말뿌리적형태부는 대다수가 자립적인 형태부에 속하며 앞붙이나 뒤붙이는 매인 형태부에 속한다.

영어형태부는 또한 표현된 형태부와 숨은 형태부로도 나눈다.

표현된 형태부는 영어단어를 이루는 실질적으로 표현된 형태부이며 숨은 형태부는 표현되지는 않지만 형태적으로 기능을 하는 형태부이다.

- 례: child → childr + en 말뿌리 + 뒤붙이 [표현된 형태부]  
 deer → deer(복수) 말뿌리 + 0 [숨은 형태부]

woman(녀성)이 women(녀성들)로 형태변화될 때 복수의 형태론적표식을 따로 떼어낼수 없는 형태부를 굴절형태부로 부르게 된다.

영어형태부에는 말뿌리들의 결합을 어음론적으로 유연하게 하기 위해 첨부되는 형태부도 있다.

실례로 litigate(소송을 제기하다), handicap(불리한 지위에 세우다), phonograph(축음기에 붙어넣다)를 들수 있는데 이러한 형태부를 련결형태부라고 하며 이것들은 더이상 분리할수 없다.

현대영어에서는 형태부들의 의미적자립성에 따라 말뿌리적형태부와 붙이형태부로 나눈다. 여기에서 말뿌리적형태부는 자립적형태부로 되고 붙이형태부는 매인 형태부로 되는데 매인 형태부의 비자립적의미기능이 어느 정도로 자립적성격을 가지면서 말뿌리적성격을 가진다고 하여 가덧붙이라고 한다. 영어에서는 이것을 주로 앞붙이에서 찾아볼수 있어서 이를 가앞붙이(pseudo prefix)라고 한다.

례: tele+photograph(전송사진), tele+scope(망원경), tele+radio(TV라디오)  
tele+vision(텔레비전), tele+phone(전화기), auto+type(자동타자)

영어문법리론학습과 연구에서는 다음으로 둘 또는 그 이상의 단어들이 결합하여 어휘화된 정도와 관계를 분석평가한다.

둘 또는 그 이상의 단어들이 결합되어 하나의 단어처럼 쓰이는것을 영어문법규범에서는 합성어로 취급하며 영어문법리론에서는 이것을 어휘화된 단어결합으로 보게 된다.

어휘화된 단어결합은 공고한 단어결합으로서 자유로운 단어결합과 대치된다.

자유로운 단어결합은 단어들이 문장밖에서 미리부터 이루어진 결합이 아니며 언어정황이나 진술의 목적에 따라 이루어지고 또 문법규칙에 따라 변경될수 있을뿐아니라 그 결합의 의미는 매개 구성요소들이 가지고있는 의미가 그대로 실현된것이다.

례: a beautiful country(아름다운 나라) [자유로운 단어결합]

단어들의 결합의 어휘화는 그 개개의 의미로 추상되는것이 아니라 결합전체로 새로운 의미를 얻어 나타난다.

례: up+surge(대고조)[어휘화된 단어결합]

영어에는 많은 동사들이 전치사적부사의 결합으로 구동사(phrasal verb)를 이룬것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단어들의 결합으로 어휘화된 동사들이다.

례: bring up(양육하다), sit down(앉다), get up(일어나다)

어휘화된 단어결합은 그 정도에 따라 성구론적유착(phraseological fusion)과 성구적통일(phraseological unit)로 나누인다.

성구론적유착은 그 유착관계가 친밀하여 개개의 구성요소의 의미를 추상하기 어려운 결합이다. 즉 결합하는 개별적단어들의 어휘적의미가 전체 의미를 내포하지 못하며 또 개별적의미들이 개개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유착된 의미에서 통일체로 나타난다. 따라서 결합자체가 나타내는 전일적의미를 모르면 그 의미를 리해하기가 어렵다.

례: make a long nose at (...을 멸시하다), put a person's nose out of joint (...을 실망케 하다)

성구론적통일은 그 결합을 이룬 개별적단위들의 어휘적의미의 독자성이 어느 정도 보존되어 단어결합전체의 의미를 어느 정도 추상할수 있다.

례: follow one's nose (곧장 나가다), lead a person by the nose (코가 향한쪽으로 나가다), see no further one's nose(심한 근시이다),

영어단어들의 결합에서는 품사전성을 동반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도 어휘화된 단어결합으로 체계화하게 된다.

례: 형용사 → 명사: the new rich(벼락부자), the war dead(전사자), a senior(선배), a noble(귀족), a solid(고체), a black(흑인), a junior(후배), a native(원주민)

형용사 → 부사: in full/in the full(전부), at least/in the least(적어도), at best/for

the best(최대로), at the present/for the present(현재/당분간)

문법적형태의 어휘화는 그 결합이 문법적의미로서가 아니라 어휘적의미의 변화로 나타나는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우선 복수형태를 가지면서 그것이 그 부류의 사람전체를 나타내고 품사전성되는 어휘화현상들이 있다.

례: the ancients(고대인), the moderns(현대인), valuables(귀중품), elders(년장자), drinkables(음료), greens(남새), eatables(음식물)

또한 영어동사의 비인칭형(미정형, 분사형, 명동사형)이 문장구성에 들어가면서 명사, 형용사, 부사, 접속사, 전치사적으로 어휘화되는 현상 즉 문법적형태의 어휘화현상이 있다.

례: 비인칭형의 문법적형태

to write, to be written, to be writing, to have written (미정형태)

writing, being written, having written (현재분사/명동사형태)

영어문법리론학습과 연구에서는 다음으로 영어단어들의 어휘문법적범주의 특성을 분석한다.

영어단어들은 여러가지 형태론적 및 의미론적특성에 의하여 문법적으로 류사한 특성을 가진 부류로 나누인다. 전통문법에서는 이와 같은 부류를 품사라고 한다.

최근시기 영어학에서는 영어품사를 세가지 기준에 기초하여 분류하였다. 즉 형태론적분류, 의미론적분류 그리고 기능적분류이다.

전통문법리론에서는 이러한 세가지 기준을 품사분류의 기초로 삼으며 때에 따라 자립어와 기능어로 구분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립품사와 보조동사로 구분하기도 한다.

현대영어에서 자립품사로는 동사, 명사, 대명사, 형용사, 수사, 부사로 구분되며 나머지를 보조어와 기능어에 소속시켰다.

한 연구자는 대명사에 관사와 부사를 포함시켰으며 조사에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그리고 일부 부사를 포함시켰다.

전통문법에서 영어품사를 8개 품사로 구분하는 주장이 역사적으로 오래동안 지속되어오다가 최근시기에 와서 10개 품사 또는 12개 품사로 구분하는 시도가 나왔다.

현대 우리 나라 영어학에서는 영어품사를 10개(명사, 대명사, 동사, 관사, 수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동사)로 인정하고있다.

12개 품사를 규정하는 문법연구자들은 양태사와 조사를 따로 설정하였다.

양태사는 부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특성을 가진다고 보면서 부사에서 떼내어 문장수식어로 보는 경향성도 있으며 조사(even, ever, never, only 등)도 부사에서 갈라서 취급하면서 12개 품사로 갈라보았다.

우리는 영어의 특성으로부터 단어의 의미와 기능도 문장(언어행위)속에서 규정되는것이 제일 정확하며 따라서 문맥과 언어행위에서 의미와 형태 및 기능을 중시하게 된다.

영어문법리론학습과 연구에서는 다음으로 문법적범주형태체계를 규정하고 그 의미와 기능을 분석한다.

문법적범주는 문법적의미를 문법적형태와의 련관속에서 일반화한 공통성의 총체이다. 그러므로 영어문법리론에서는 문법적범주형태체계를 기본으로 하여 문법적의미와 문법적형태체계를 통일적으로 연구한다.

일반적으로 영어문법에서는 문법적현상들을 연구하는데 주로 두가지 측면에서 즉 하나는 문법적현상의 내적측면에서 다른 하나는 그 외적측면에서 연구한다.

내적측면에서는 문법적의미를 그리고 외적측면에서는 문법적의미표현의 수단을 연구한다. 모든 문법적현상은 형식과 내용의 두 측면을 가지는데 문법적의미는 반드시 문법적수단에 의하여 표현되고 문법적수단은 일정한 문법적의미를 표현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법적외피를 가지지 않는 문법적의미를 생각할수 없다.

문법적형태는 문법적의미전달을 사명으로 하고있기때문에 우리는 문법적범주에 대하여 론할 때 언제나 문법적형태와 의미를 출발점으로 한다. 그러므로 문법적범주와 규칙들은 반드시 의미론적견지에서 서술되고 나아가서 기능적으로 서술되게 된다.

영어문법리론에서는 문법적형태체계를 품사체계와 범주체계, 문장조직체계에 작용하는 규칙과 본문에서 문장들간의 연결방식을 규제하는 규칙들에 대하여서도 연구하여 합법칙성을 제기하고 일반화, 체계화하게 한다.

영어문법리론학습과 연구에서는 다음으로 영어문장을 조직하는데 쓰이는 규칙들을 분석한다.

영어단어들은 문장으로 조직될 때 자기 의미에 따라 무질서하게 결합되는것이 아니라 일정한 문법적규제에 기초한 결합을 이룬다. 따라서 여기에서도 철저한 문법의 규제조건이 작용하게 된다.

영어문장의 구성단위는 단어와 단어들의 결합 그리고 절이다. 그리고 영어문장의 구성방식은 어순규칙과 굴절변화에 따르는 일치방식이다.

영어문법리론에서 문장을 론할 때 그 구성단위를 먼저 론하게 되며 나아가서 문장론적단위의 내적연계에 대하여 론하게 된다.

영어문장구성단위는 작은 단위로서는 단어와 단어결합을 론하며 큰 단위로서는 구를 론하게 된다.

영어문장구성단위의 내적연계에 대해 론할 때에는 주로 주어와 술어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면서 나아가서 보어, 상황어와의 관계를 론하게 된다.

영어문장에서 술어가 핵심적인 중심성분단위로 되지만 반드시 주어와의 문법적일치관계를 기본으로 하면서 부성분들인 보어와 상황어와의 연관적관계도 이루게 된다.

영어문장구성단위에서 술어는 구조적중심이 된다.

우선 영어문장에서 술어는 문장형태구조의 공고한 중심으로 된다. 문장의 형태구조의 공고한 중심단위는 일정한 문장론적관계속에 존재하면서 다른 성분단위를 제약하는 핵심성분단위로 된다. 핵심성분단위는 문장의 공고한 구조적축으로 되면서 다른 성분단위들을 연결하고 결합한다. 여기에서 술어동사가 문장의 구조적축으로 된다.

영어문장에서 술어동사가 놓이는 위치적표식에 따라 문장의 구조적류형이 규제된다. 즉 영어문장에서 술어동사가 놓이는 위치적표식에 따라 명령문(앞자리), 서술문(주어 다음 위치), 감탄문(마지막위치) 그리고 물음문(물음형조동사를 내세울 때)으로 된다.

또한 영어문장에서 술어동사는 다른 성분들을 연결시키고 그 결합의 구조적중심단위로 된다. 특히 술어동사는 직접보어를 지배하며 상황어의 수식을 받으면서 그것을 그의 앞 혹은 문장의 마지막자리에 배열한다.

영어문장에서 술어동사는 서술성을 나타내면서 진술성을 규제하는 기본수단으로 된

다. 진술성은 이야기하는 내용이 현실과 맺은 련계의 성격으로서 문장이 갖추어야 할 기본징표로 된다.

영어문장에서 진술성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단어의 서술형이며 그가운데서 기본은 단어의 맺음형이다. 그것은 맺음형이 진술성표현의 기본범주인 시칭범주, 상범주, 범범주, 태범주를 나타내기때문이다.

뿐만아니라 진술성을 나타내는 기본수단은 술어동사의 양태성이다. 양태성은 양태조동사에 의해 표현된다.

또한 영어문장에서 술어동사는 문장의 어조를 특징짓는 기본성분단위로 된다.

문장의 언어적형식화는 그것의 구조-문법적형식화에 의해 특징지어지며 어음론적수단의 작용에 의해서 안받침되기도 한다.

영어문장의 발음은 문장억양에 의해서 문장의 의미를 최종적으로 규정하며 이러한 문장발음은 문장의 구조적류형에 따라 규제되는 경우가 더 우세하다. 간혹 말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 다소 변경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한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실례로 물음문장인 경우 물음사와 조동사사용을 기본으로 하면서 올림어조를 취할수도 있고 내림어조를 취할수도 있다. 감탄문장인 경우에도 술어동사부분에서 내림어조를 취하는것은 전통문법에서 규제된 사실로 되고있다.

일부 영어학습자들은 영어문장의 통신적의미의 중심에 대해 논의하면서 문장의 전체로 되는 부분과 해결로 되는 부분으로 나누고 전체로 되는 주제부는 정황에 따라 쓰이기도 하고 쓰이지 않기도 하며 설명부만으로도 통보내용을 대신할수 있다고 하고있다. 그것은 설명부의 내용이 새롭게 알리는 내용인것만큼 통보의 기본내용을 담당하기때문이라고 보고있다. 그러므로 설명부의 내용을 통보내용의 《기본적인 핵심》 또는 《중심》이라고 하는것이며 따라서 실제상 그것이 없으면 통보내용이라고 하기 곤란하다고 하며 설명부는 바로 술어동사가 담당한다고 하였다.

### Language is a powerful means of human life.

주제부

설명부

영어문법리론학습과 연구에서는 다음으로 영어문장에서 문장성분들의 문법적련관관계와 의미적어울림관계를 분석한다.

영어문장은 일정한 문장론적관계를 가지고 서로 련결된 성분들로 이루어지게 된다. 영어문장을 구성하는 이러한 성분들은 개별적인 단어나 단어결합과는 달리 문장내에서 문법적으로 서로 련관관계를 맺게 된다. 그러므로 문장성분들은 문장구성에 참가하는 기본구조적단위이며 의미기능적단위로 된다. 이런 측면에서 영어문장성분들이 문장내에서 맺는 상관관계가 바로 문법적련관관계이며 의미적어울림관계이다.

영어문법리론에서는 문장내에서 문장성분들이 맺게 되는 문법적련관관계를 크게 병렬적관계와 종속적관계로 보게 된다.

영어문법리론에서는 문장내에서 문장성분들의 련관관계를 그 성격에 따라 한 성분이 다른 성분에 대하여 설명하고 설명을 필수적으로 받는 상관관계, 한 성분이 다른 성분을 제약하고 다른 성분은 그 제약에 의하여 수식되고 꾸미여지는 상관관계로 나누어 연구하게 된다. 그리고 영어문장에서 문장성분들의 문법적련관과 어울림을 문법적형태와 의미의 통일적관계에서 분석하여 연구하면서 련관관계가 이루어지는 조건과 방식을 이루는 언어

적수단(단어들의 문법적형태, 어순, 보조적단어, 기타 언어적수단 등)을 연구한다.

영어문법리론학습과 연구에서는 다음으로 영어본문에서 문장들의 련결방식을 규제하는 규칙들을 분석한다.

영어본문의 기본구성단위는 단락(paragraph)과 문장군(group sentences)이다.

영어본문은 일정한 내용을 담고있는 여러개의 자립적문장들이 논리의미적으로 뿐아니라 문법적으로 련관관계를 이루며 전일적인 체계로 존재한다. 즉 문장안의 언어적단위들은 논리문법적으로 련관관계를 맺으면서 하나의 체계를 이룬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언어적단위들을 논리문법적으로 련관시켜주는 어휘적수단과 문법적수법으로 나누어 연구하게 된다.

우리는 영어문법리론학습과 연구에서 나서는 실천적인 문제들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켜 학생들을 유능한 혁명인재로 키울수 있게 외국어교육을 과학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영어문법리론, 연구과제